광야에서 은혜로, 그리고 흘러가는 생명으로



정현숙

1993년, 저는 뉴저지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와 환경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채, 어느새 외로움이 제 일상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는 보이지 않게 쌓여갔고, 결국 몸의 연약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약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삶은 점점 더 메말라 갔습니다. 마음은 지쳐갔고, 예배의 자리조차 멀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걸어가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김에스더 목사님(당시 사모님)의 권유로 젊은 엄마들의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제 메마른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굳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지쳐 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말라 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제 안에 생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불만과 판단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부족함을 품고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큰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말씀을 배우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머물며,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복의 길이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뉴저지에서의 4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미주리주 St. Louis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그곳에서 받았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흔적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된 삶 속에서도, 그때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김에스더 목사님과 연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Zoom을 통해 여성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끊어진 줄 알았던 영적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새벽, 이곳 시간으로 3시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붙들어 주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며, 저는 성경공부를 통해 만난 하나님과 김에스더 목사님을 통해 받은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지금의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Q.T 여성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하며, 웃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전에 제 영혼을 살리셨던 그 은혜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민 초기의 광야와 같았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가 제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흘러가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심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에스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8)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2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1993년 재미교포 신혁과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
뉴저지를 거쳐 1997년 세인트루이스로 이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현재 Mercy Rehabilitation Hospital에서 RN으로 일하고 있으며
세인트루이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큐티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수도원성경반 회원.

Pastoral Supervision 모임

2014년에 30대 40대 담임 목사들이 모여 이민목회의 문제와 갈등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며 여기서 이야기된 일은 사모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가입한다. 아직까지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때론 선배 목회자를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경우에 따라 도서를 설정하여 발표한 후 토의를한다.
우리 모임은 첫 번째 경건회로 찬송과 기도 그리고 5분 메세지의 설교로 이뤄진다. 때론 종교단체를 견학가기도 한다. 모임의 supervisor는 김창길 목사이며 현장목회에서의 이슈에 대해 매번 그의 목회 경험담과 방향 제시로 멘토링을 해주신다.



그동안 우리 모임을 섬겨주신 섬김이는

초대 회장	고창주 목사(예수사랑교회)	KPCA	2014년도
2대 회장	김영철 목사(이레교회)	KPCA	2015년도
3대 회장	정인식 목사(선한이웃교회)	KMC	2016년도
4대 회장	김성환 목사(한생명교회)	KPCA	2017년도
5대 회장	한성윤 목사(주섬김교회)	KPCA	2018년도
6대 회장	권기현 목사 (Giving Church)	ECO	2019년도
7대 회장	임성균 목사(새하늘교회)	KMC	2020년도
8대 회장	조유환 목사(선한말씀교회)	KPCA	2021년도
9대 회장	박동은 목사(빛된교회)	KPCA	2022년도
10대 회장	고범석 목사 (주섬김교회)	KPCA	2023년도
11대 회장	하 늘 목사 (시온성교회)	C&MA	2024년도
12대 회장	인성재 목사(새하늘교회)	KMC	2025년도